광주 가계빚 다시 급증…대출 더 옥죈다

지난해 20.6% 증가 '전국 최고'…가구당 6035만원으로 1000만원 ↑
정부, 내년 증가율 8%→4% 단계적 관리…'DSR 40%' 대상 확대 거론

지난해 광주 가계부채가 전국에서 가장 크게 늘어난 가운데, 금융당국은 현재 8%대인 가계부채 증가율(기타부문 포함)을 내년에 4%대로 내리기 위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이달 중 발표한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차주(채무자)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적용 등을 포함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이달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이달 중에 발표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증가율을 단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담긴다.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적용 대상을 점차 넓혀나가는 방식이 거론된다. 이 비율은 대출 심사 때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현재 은행별로 평균치(DSR 40%)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차주별로는 DSR 40%가 넘게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막겠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 통계청이 펴낸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가구당 평균 부채 증가율은 20.6%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광주 평균 부채는 지난 2019년 5003만원에서 이듬해 6035만원으로, 1000만원 넘게 늘었다. 부채 증가율은 광주에 이어 인천(16.8%), 강원(14.1%), 전북(8.1%), 부산·충남·제주(각 8.0%), 충북(6.8%), 세종(6.4%), 대구(4.6%) 순으로 높았다.

전국 평균 증가율 4.4%(7910만원→8256만원)를 밑도는 시·도는 전남(-4.6%), 대전(-3.0%), 경기(0.0%), 울산(1.6%), 경북(3.2%), 경남(3.9%), 서울(4.2%) 등 7곳이었다.

광주 부채 증가율은 2018년 11.0%에서 2019년 4.6%로 반토막 났지만 지난해 또다시 20.6%로 크게 반등했다.

전남 가구당 평균 부채는 4765만원에서 4545만원으로, 220만원(-4.6%) 감소했다.

광주는 가구당 평균 부채 가운데 '금융부채'도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광주 금융부채 증가율은 23.3%로, 전국 평균(5.1%)보다 4.6배나 많았다. 금융부채는 5029만원으로, 평균 부채(6035만원)의 83.3%를 차지했다.

부채를 구성하는 나머지 항목인 임대보증금은 지난해 기준 광주 1006만원·전남 661만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9.1%, 5.2% 증가했다.

전남은 지난해 들어 가계대출 증가율이 전국 2위로, 전년(7위)보다 5계단이나 뛰었다.

전남지역 예금취급기관에 대한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26조4348억원으로, 전년(23조8923억원)에 비해 10.6%(2조5425억원) 증가했다. 이는 서울(12.6%)에 이어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 2019년 증가율 1위를 기록한 광주는 지난해 서울, 전남, 부산·대구(각 9.0%)에 이어 5번째로 높았다.

코로나19 경기침체 영향으로 광주·전남 가계대출 잔액이 지난해 처음 50조원을 돌파하는 등 가계부채가 급격히 늘자, 정부는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장기적 관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지난 12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은행이 예상한 2분기 신용위험지수는 26으로, 1분기 13보다 13포인트(p)나 높아졌다.

2분기 은행의 대출태도 지수(-2)는 1분기(5)보다 7포인트 떨어졌다. 2분기에 대출 심사조건을 강화하거나 대출 한도를 낮추는 등의 방식으로 대출을 조이겠다고 대답한 금융기관이 더 많아졌다는 뜻이다.

차주별 대출태도 지수는 ▲대기업 -3 ▲중소기업 6 ▲가계 주택대출 -18 ▲가계 일반대출 -9로, 1분기(0, 18, -6, -6)와 비교해 모두 떨어졌다. 특히 가계 주택관련 대출 하락 폭이 컸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15일부터 26일까지 201개 금융기관(은행 17·상호저축은행 16·신용카드 8·생명보험사 10·상호금융조합 150) 여신 총괄 책임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은행, 아동양육시설 후원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오른쪽)은 유아, 초·중등생 등 69명이 생활하고 있는 아동양육시설 '노틀담 형제의 집'(남구 봉선동)을 찾아 후원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광주은행 제공〉

본격 출하 앞둔 봄대파…'대란' 끝나나

올해 신안에서 생산된 겨울대파가 이달 중순 기준 95% 상당 출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봄대파가 이달 중순 본격 출하하면서 대파 값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가 발표한 '대파 산지 동향 및 전망'에 따르면 이달 1~13일 대파(상품) 평균 도매가격은 kg당 4330원으로, 지난달 하순(4440원) 보다 2.5%(110원) 하락했다. 광주 양동시장 소매가(1kg·상품)는 13일 기준 4000원으로, 1년 전(1800원)의 2.2배(122.2%↑) 수준이지만, 일주일 전보다는 500원(-11.1%) 떨어졌다.

이달 1~12일 서울 가락시장에서 거래된 대파는 총 2700여 t으로, 신안은 전체의 65.4%를 차지한다.

이어 영광 22.7%, 진도 6.5%, 기타 5.4% 순으로 비중이 나타났다.

이달 중순 현재 겨울대파 출하는 신안(95%), 영광(90%) 등지에서 마무리 단계이나, 하순까지 출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출하 가능물량은 지난해나 평년보다 크게 적을 것으로 보인다.

봄대파는 이달 상순부터 출하가 시작됐으며, 15일께 시설 및 노지 봄대파가 본격 출하된다.

시설 봄대파 주 출하지는 경기 고양·남양주, 충북 청주 등이며, 노지 봄대파는 전북 부안과 완주, 부산, 경남 김해 등에서 주로 생산된다.

이달 1~10일 신선 대파 민간 수입량은 548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3t)보다 7배 가량 많다.

양진석 양념채소관측팀 연구원은 "봄대파 출하로 이달 중순 이후 가격 하락세를 전망한다"며 "5~7월 봄대파 출하량이 평년보다 많아 공급 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봄대파를 4~5월 조기 출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

광주상의, 중기 공공조달시장 진입 지원

광주상공회의소는 지역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다수공급자계약(MAS)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광주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2018년부터 시행해왔으며, 이날 모집공고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 12개사를 선정해 다수공급자계약 전문 컨설팅(300만원 상당)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수공급자계약 제도는 기존 최저가 낙찰자 선정 방식으로는 제품의 다양성 부족과 품질 저하의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다수의 공급자를 선정, 선의의 가격, 품질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수요기관이 별도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제품을 손쉽게 구매하는 제도다.

공공조달시장은 국내총생산(GDP)의 7%에 달하는 135조원 규모의 거대시장으로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해 공공조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지만, 지역 중소기업은 공공조달 관련 전문 인력 및 정보 부족으로 공공조달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광주상의는 지역기업의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구축한 맞춤형 입찰정보시스템을 강화해 나라장터 등 전국 주요 기관의 입찰 정보를 제공한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3169.08 (+33.49)
↑	코스닥	1010.37 (+9.72)
↓	금리(국고채 3년)	1.138 (-0.002)
↑	환율(USD)	1125.90 (+1.00)

완도 수산물 대전
롯데백 광주점 내일까지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오는 15일까지 '청정 완도 수산물 대전'을 지하 1층에서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행사 기간 동안 완도에서 수확한 싱싱한 수산물을 산지 직거래를 통해 시세보다 20% 이상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대표 상품으로는 전복 특대 1kg(9미) 5만6000원, 광어회 100g 4300원, 국물용 멸치 한 상자(1.5kg) 1만3500원, 곱창김 100매 3만5000원 등이 있다. 이들 상품을 3만원 이상 구매하면 완도산 미역(40g)이나 다시마(100g)을 받을 수 있다.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1~2월 전남지역 전복류 생산금액은 8446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000만원) 보다 4.2배(322.3%) 가량 급증했다. /백희준 기자 bhj@

국내 첫 하이브리드 미니밴
토요타 '뉴 시에나' 출시

토요타코리아는 13일 국내 시장 최초 하이브리드 미니밴 '뉴 시에나 하이브리드'의 온라인 출시 행사를 갖고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간다고 이날 밝혔다.

4세대 완전 변경 모델로, 미니밴의 핵심 가치인 실용성과 편안함을 유지하면서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같은 역동적인 외관 디자인과 여유로운 실내 공간을 구현했다.

2WD와 AWD 2가지 모델로 출시되며, 2.5ℓ 가솔린 엔진과 전기모터가 조합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탑재됐다. 시스템 총 출력 246마력과 복합 연비 기준 2WD 14.5㎞/ℓ, AWD 13.7㎞/ℓ의 뛰어난 연비를 실현했다.

전 모델 예방 안전 기술 패키지인 토요타 세이프티 센스를 기본 적용했고, 2WD 모델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기능이 추가됐다.

뉴 시에나 하이브리드의 권장소비자 가격은 AWD 모델 6200만원, 2WD 모델 6400만원이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